

무서워하는 까마귀-아이

글 차연서

까마귀 소년(Crow Boy) (야시마 타로, 1955)의 표지에는 날카로운 눈을 한 아이가 입꼬리가 올라간 검은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머리를 가깝게 둘러싸는 형태로 두건을 둘러서인지 소년이나 소녀보다는 그저 짧은 머리가 빠죽거리는 작은 아이로 보인다. 이 얼굴은 반짝거리기도 하고 으스스하게도 느껴진다. 외꺼풀의 눈매는 서늘한 데다가 약간의 사시로 초점이 더 멀어져서, 눈앞에 있는 것을 총기 있게 마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 멀리 움직이는 풍경을 좇아 응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느다란 입가는 특정한 모양으로 비틀어져서는 은근한 자신감을 내비친다. 얼굴에는 숫검정 따위가 빗겨 묻은 것처럼, 혹은 아래에서 위로 가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명암이 진다. 내지를 펼치기 전에 상상해 보기를 — 어른들은 이렇게 예민한 얼굴을 한 아이를 경계할 수도 있고, 애써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얼굴을 한 주인공은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든 그렇지 않은 간에 세계의 날카로움에 자기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아이일 것이다. 한편에는 아이의 검은 입술과 비슷한 크기로 조그맣게 그려진 까마귀가 쫓뻗하고도 뭉뚱한 가지 위로 앉아 있다.

가르치도록 정해진 것들을 도무지 배울 수 없다는 것은 특별한 자질이다. 언제나 끝("the end of the line")과 발치("at the foot of the class")에 있던 아이는 배우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대신, 해 뜰 때 집에서 나와 해 질 때 집으로 돌아갈 만큼 멀고 먼 등하곳길에서 들려온 까마귀 소리를 모국어 삼아 그 안의 차이들을 알아차리고 또렷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학예회에서 무대로 올린 그의 소리들에 사람들의 마음은 까마귀 소년이 저 멀리 걸은 산자락으로 "끌려간다". 표지 그림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까마귀 소년의 외롭고 총명한 얼굴이다. 검고 자유로운 입술로 출현하는 작은 작가의 초상이다.

"우리가 학교에 간 첫날이었단다. 아이 하나가 없어졌어."³ ("On the first day of our village school in Japan, there was a boy missing."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화자는 일본 마을학교의 첫 등교일로 돌아가 어느 작은 아이에 대해 회고하기 시작한다. 그림 속 칠판, 간판, 팻말 또한 모두 일본어(가타카나와 한자)로 되어있지만, 이 책의 초판은 작가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인 1995년 뉴욕에서 출간되었다. 야시마 타로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1908년 일본 가고시마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지금은 근처 다른 마을과 합병되어 없어진 네지메정(根占町)인데,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대입해 보면 '면'에 해당한다. 항구와 어촌이 있는 작은 마을이다.

표지와 마찬가지로 내지 그림 또한 검은 색연필로 어두컴컴하게 들어가는 명암 처리와 검은 잉크로 진하고 날카롭게 처리한 선화가 밝은 색채와 어우러지면서 으스스한 조화를 이룬다.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풍경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야기 속 까마귀들은 산자락 뿐만 아니라 해안가의 정경으로도 이어지고, 검은 잉크는 바위 많은 바닷가의 풍경처럼 둔탁하고 날카롭다. 또한 잉크와 색연필의 질감으로 혼색된 색면들은 꼼꼼히 살펴보면 검정, 노랑, 하늘, 분홍— 4가지 색이 전부인데, 석판화(lithography)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1950년대 이후 정착한 오프셋 리소그래피(offset lithography)로 인쇄되어 석판 대신 고무판에 4색 잉크(CMYK)가 사용되었다. 넓은 면적이 섀도라게 칠해진 목조 건물의 전경이 첫 페이지부터 등장한다.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교실로 바로 이어지도록 이어진 작은 학교이고, 지층과 조금 띄워져있는, 마치 툇마루 아래와도 같은 틈새 공간에 조그만 아이가 기어 들어가 숨어있다. 아이는 "땅꼬마"⁵ ("chibi(ちび)", tiny boy⁶) 라고 불리게 되는데,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선생님과 동급생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쫓 혼자다.

쉴쉴한 땅꼬마의 수난이 이어지는 페이지들을 조금 더 넘기면, 이윽고 그림 속에서 아이는 천연덕스러운 무표정으로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눈을 가운데로 모으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꼬마는 사팔뜨기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⁷ 그의 위치는 구석지고, 그의 주변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기울어진 타원이 섀도라게 둘러싸고 있다. 넓게 펼쳐지는 타원의 색면에는 다른 색들이 희석된 것처럼 흐릿하고도 버글버글하게 섞여 있어, 마치 아이가 외부 반응을 둔감화하며 스스로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안전지대처럼 보인다. 이때 아이의 사팔뜨기 흉내는 '외사시'도 아닌 '내사시(cross-eyed)'⁸다.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글·그림 | 윤구병 옮김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윤구병 옮김, 비룡소, 1955/1956) 표지

¹ Yashima Taro, Crow Boy, Picture Puffin Books, 1955/1996)

²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윤구병 옮김, 비룡소, 1955/1996)

³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1955/1996)

⁴ Yashima Taro, Crow Boy, 1955

그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기 위해 시야를 좁히는 법을 익힌다. 하나의 사물을 수시간 동안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관찰하고 발견하는 법, 가깝고 먼 것들의 각기 다른 소리들을 눈 감고 듣는 법, 다리가 하나도 없거나 다리가 수없이 많은 땅벌레들을 손에 올려 바라보는 법, 그렇게 시간을 죽이는 법, 죽은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차례차례 찾아낸다.

이 아이가 홀로 존재해야 하는 학교에서 생존을 위해 갖게 되는 자폐적인 시선은 스스로의 시야를 좁히고 닫는 비생산적인 시선, 우둔한 시선, 시각보다는 청각, 그리고 촉각·미각적 관찰에 가까운 '미시적 시선'이다. 아이는 같은 학급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학년에게 따돌려지기 시작하지만, 한결같이 학교에 온다. 점심 도시락은 항상 무의 이파리로 싸고 그 밖에는 아무 든 것이 없는 맨 주먹밥이고,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칠 때면 아이는 우산을 든 다른 아이들 사이로 그저 푸른 두건에 도롱이(짚을 엮어 만든 비옷)를 두르고 걸어온다.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가 매일 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그저 '성실함'이나 대한 교훈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 도무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배우지 않는 아이가 학교에 매일 왔다는 사실 말이다. 그건 하루하루의 생에 대한 '정직함'이나 '헌신'에 더 가까울까? 야시마 타로가 국가에 의한 감금과 고문을 경험하고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예술가라는 점을 떠올려 보았을 때, 나는 소년의 미시적 관찰력과 재현적 행동들에 대해 어찌면 그가 찾은 화가로서의 시각성, 작가성에 대한 반영으로도 따라간다. 그리고 세계의 폭력성 앞에서 우둔한 아이로서 생존하는 예술가들, 내가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의 작업과 스스로의 언어, 그리고 그것에 보내는 시간 속에서 찾아내는 잔인함, 우둔함, 게으름, 충동, 은둔, 발광, 그리고 자유로움을 떠올린다. 내사시의 수치심 속에서 발견해 내는 그 자신의 모국어, 그것은 끝내 선택하게 되는 태도이자 여전히 선천적인 자질이다.

선생도, 동급생도, 찾아오는 부모도 없이 배우고-배우지 못하는 5년의 하루하루가 지나고 졸업 학년이 되자 이소베 선생이 담임으로 부임한다. 그는 아이와 유일하게 대화하는/할 수 있는 인물이며 아이가 그린 그림과 글씨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아는 지식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인물이다. 마지막 학예회에서 소년은 이소베 선생의 도움으로 독무대를 발표한다. "까마귀들의 목소리."⁹ (VOICES OF CROWS.¹⁰) — 소년은 제목 역할을 하는 첫 마디를 내뱉은 이후로 다양한 까마귀 울음소리의 차이를 섬세하게 모사하기 시작한다. 갓 부화한 때 아기 까마귀와 엄마 까마귀, 그리고 아빠 까마귀, 아침이 밝아올 때, 마을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즐겁고 행복할 때, 그리고 고목나무 위에 앉아 우는 까마귀 —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상황의 까마귀 목소리가 순서대로 이어진다. 이 학교에서 누구도 가르치기로 약속하지 않은 세계의 언어가 모두의 앞에 출현하고, 낯선 일상성으로서 불현듯 호출된다. 그렇게 아이는 '무서운'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발표 무대를 만든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상징계에 진입한다.

까마귀 소년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토해내는 아주 별난 소리""로 말하기를, "까우우워워아악! 까우우워워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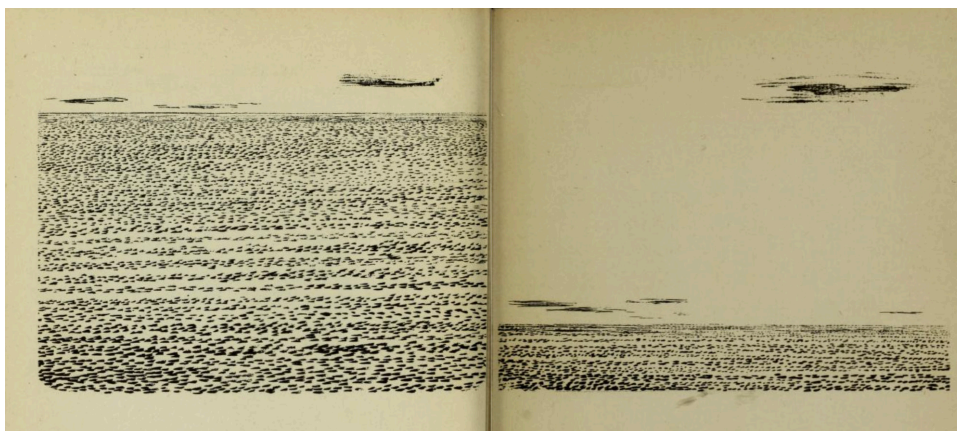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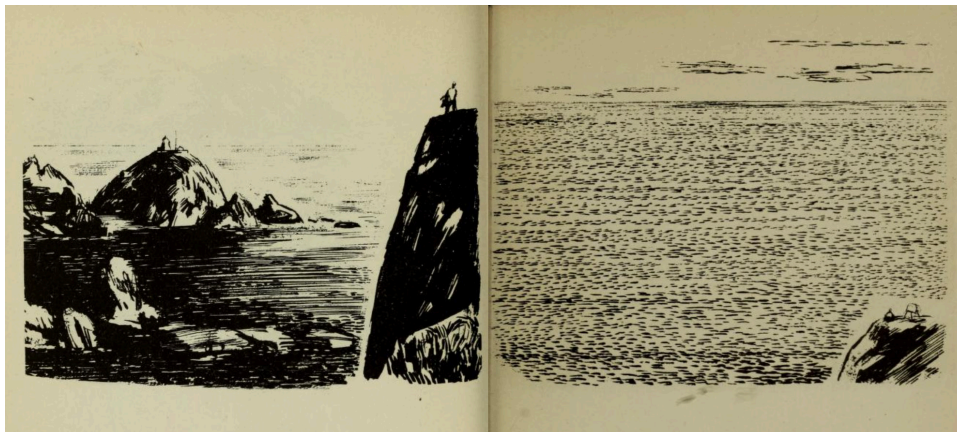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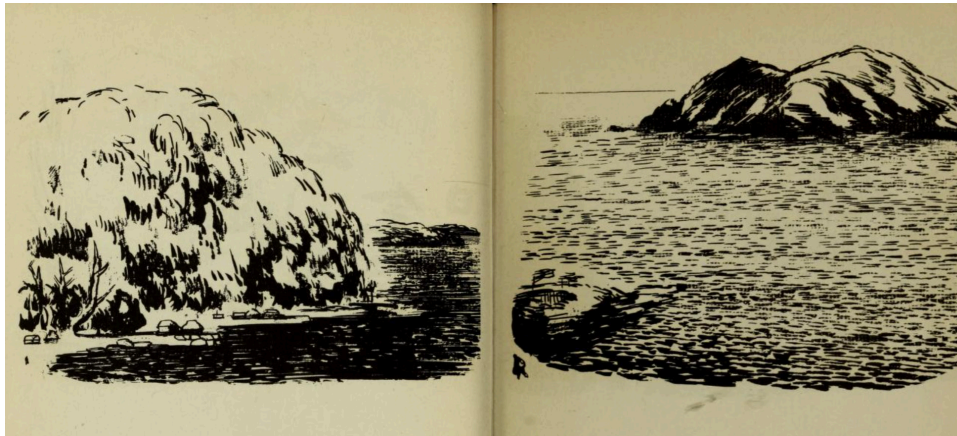
¹²("KAUWWATT! KAUWWATT!"¹³)— 오래된 나무에 혼자 앉아있는 까마귀는 이런 소리를 낸다. 아이가 새카만 울음소리를 '목소리'로서 모두의 앞에서 읊는 순간이 내게는 마치 그가 자신의 언어를 만들고 공동의 것으로 내놓는 데뷔의 순간으로 느껴진다. 이때 이소베 선생은 소년이 그러한 소리들을 배웠던 것은 일출 때 집을 떠나고 일몰에 집에 도착한 6년간의 시간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까마귀 소년의 울음소리를 퍼포먼스로서 열고-닫는다. 그가 아이가 무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승인'했다기 보다는, 까마귀 소년이 그 자신의 고유성을 거의 번역하지 않는 형태로 일으키는 사건에 '조력'했음으로 읽는 것이 내게는 조금 더 자연스럽다.

"우리들은 모두 울었어."¹⁴ ("Every one of us cried"¹⁵) 까마귀 소년과 함께 졸업하는 동급생들은 그들이 소외시켰던 한 아이의 존재를 처음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가 수신하는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그 속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 무리들 안에는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로서 회상하는 화자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도 눈물을 흘리며 ("Even grownups wiped their eyes"¹⁶) 그는 놀라운 아이 ("he is wonderful!"¹⁷) 라고 말한다. 까마귀 소년의 무대는 관객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외상이자 선물로 찾아오고, 그들은 그동안 속해왔을 집단의 이해와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른 역명의 공동체로 들뜬다.

^{5 7 9}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1955/1996)

^{6 8 10} Yashima Taro, Crow Boy, 1955

이야기 속에서 아이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도 멀고 먼 산자락에 살며, 가족들이 구운 숯을 팔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가끔씩 읍내에 돌아온다. 어느 마을 학교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까마귀 소년'이 출현하는 장소에서 교차하며 살아간다. 소년이 먼 산자락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면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고, "어른처럼"¹⁸("like a grown-up man"¹⁹) 어깨를 편다.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길에서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를 안다. 6년 과정의 마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는 여전히 너무 어리지만, 그렇게 소년은 공동체 안에서 너무 외롭지는 않은 일원으로서 어른이 된다. 백치이자 이방인으로 자란 아이의 수행적 생이 그의 성장 환경, 그리고 그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세계와 화해되었는지는 모른다.



Yashima Taro, *Horizon is Calling*(수평선이 부른다), 1947 pp. 270 - 275

야시마 타로의 필치와 미술적 기법에서 나의 작업에 참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몇 가지 찾아냈기 때문에 그의 저작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까마귀 소년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축제"를 만드는 시간을 생각보다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축제"는 내가 얼마동안 해 왔고 여전히 해나가고 있는 작업이다.

2023년 초, 나는 그해 개인전을 위해 큐레이터와 미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소 긴장하며 작업방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빠의 급사 이후 갖은 신체 증상들에 시달렸고, 나의 유년기는 갑작스럽게 호출되어 한동안 그것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당시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던 법의학 책의 페이지들을 그려보려고 이런저런 재료적 시도를 했고, 그중 죽은 아이들이 나오는 챕터부터 매달려서 — 아빠가 남긴 작업 재료이자 유품인, 채색된 다크종이들을 큰 가위로 오리는 것으로 드로잉을 시작했다. 원재료의 쓰임새였던 아빠의 추상평면 시리즈의 제목이 "축제"였기 때문에, 나도 이 친구들의 이름을 "축제"라고 부른다. 다만 나는 남겨진 재료들을 훼손하는 과정으로서, 사체들의 형상을 정말로 오려서 그린다. 나는 고립된 시간들 속에서 "축제"를 작업하고, 그러면서 찾아오는/마주하는 가위눌림을 그들의 돌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까마귀를 필사하듯이, 나는 사체들을 필사한다.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이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까마귀 소리를 내는 것도 어떤 교육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거기엔 '내사시'로서 죽이고/생존한 시간만이 들어간다. 그리고 까마귀들도, "축제"들도 마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축제"를 오리고 쓰고 그리는 시간들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심지어 까마귀 소리와 비슷하다. "끄을! 끄을! 끄을! (KAWATT! KAWATT! KAWATT!) - END! END! END!" 까마귀 소년의 고향 친구는 까마귀들이고, 내 고향 친구는 "축제"들이다. 첫 작업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거주하던 자리가 있었고 이제는 마치 고향에 돌아가듯이 종종 방문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곳은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포근한 내 고향이다. 나는 도무지 탈진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의기양양하게 찾아가기도 한다. 그들은 으스스한 얼굴로, 익살스러운 얼굴로, 그리고 성스러운 얼굴로 허락한다.



차연서, 축제 23 #1 꽃다발을 든 아이, 2023, 페이퍼컷 콜라주, (다크종이에 채색: 故 차동하), 108 x 89 cm



단색광 아래에서의 '꽃다발을 든 아이', 차연서 개인전 살도 빼도 없는 나에게 (SAPY 그레이팅, 유망예술페스타, 2024)



〈까마귀 소년〉속 "땅꼬마가 그린 그림"

까마귀 소년 의 이야기 속에는 액자식 구성으로서 흑백 그림이 한 점 등장하는데, 이 드로잉은 "땅꼬마가 그린 그림"으로 언급된다. 그곳은 태양마저도 새카만 성계가 되어 따끔따끔한 가시를 부스럼처럼 떨어낸다. 으스스한 가버움, 명랑함과 천연덕스러움이 있는 색채들을 들어낸다면 마주하게될 흑백의 세계를 상상해 본다. 흑백 드로잉은 야시마 타로가 어린이책 작업으로 진입하기 전 발표했던 두 권의 장편 그림책에서 보다 많은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 페이지마다 하나의 흑백 그림과 한두 줄의 간결한 문장이 주어지는 형식에 장수는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다. "포로들에게 자백서를 요구하자, 그는 대신 그때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이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회고록의 주요 부분"이 된다. 그렇게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정치범으로서의 경험에 의해 재구성"된다.(Robert Rozema, A New Reading of a Classic: Taro Yashima's Crow Boy, Japanese Eugenics, and Autism, 2022) 이것은 그가 미술 유학이자 망명으로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후 첫번째로 출간한 새로운 태양 (Taro Yashima, The New Sun, 1943)에 대해 찾은 설명이다.

나는 절판된 후속작인 수평선이 부른다 (Taro Yashima, Horizon is Calling, 1947)만을 까마귀 소년 과 함께 읽었다. 첫 챕터는 화자가 아내와 함께 감옥에서 나왔던, 1935년에서 193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로 시작한다. 그들은 친정에서 지내며 병상에 누워있다. 봄이 오자 첫아들인 '마코'가 태어나고,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아내는 차차 걸을 수 있게 된다. 화자는 스스로의 "웃는 자화상"²⁰, 그리고 "꽃들"²¹을 작업하고, 생생한 과일과 채소들을 그리는 데 열중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작가를 그림쟁이로 분류한다. 내게 그림쟁이란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태어나는, 그림쟁이벌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투옥 생활과 출산으로부터 회복하는 겨울을 보낸 이후, 예술가 부부는 스케치 여행을 떠난다. 여행의 첫 페이지는 파도치는 바다이다. 파도는 같은 자세를 반복하며 "우리에게 그들의 웃는 이빨을 보여준다."²²

수평선이 부른다 에 실린 수 페이지의 그림들 중 반복하여 내게 출현하는 이미지는 누워있는 몸들에 대한 드로잉이다. 그들은 수평선처럼 누워있고, 수평선은 끝없이 열린 채로 "부르고"²³, "초대한다".²⁴

²⁰ 수평선이 부른다 (Taro Yashima, Horizon is Calling, 1947), p.8.

²¹ 수평선이 부른다 (Taro Yashima, Horizon is Calling, 1947), p.8.

²² 수평선이 부른다 (Taro Yashima, Horizon is Calling, 1947),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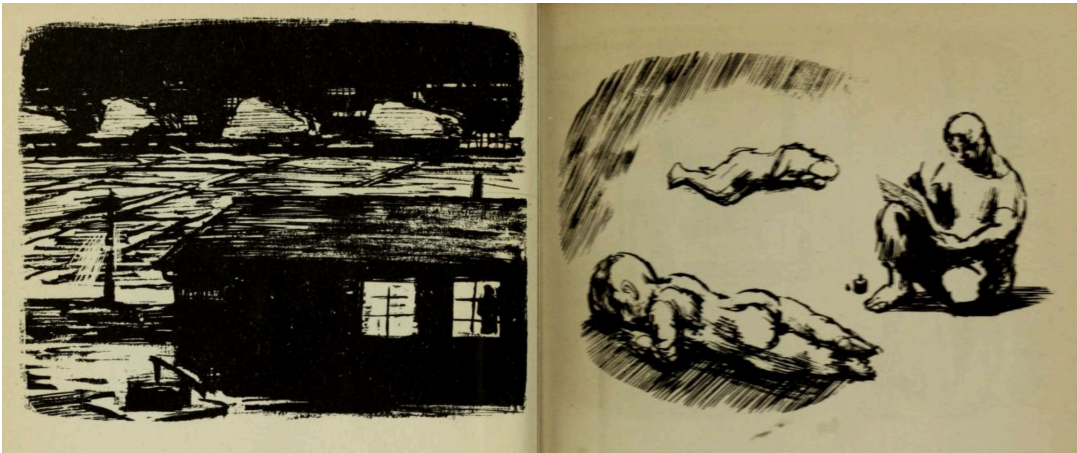
²³ 제목인 'Horizon is Calling'에서 'Call'의 사전적 의미 중 하나로 "부른다"

²⁴ 제목인 'Horizon is Calling'에서 'Call'의 사전적 의미 중 하나로 "초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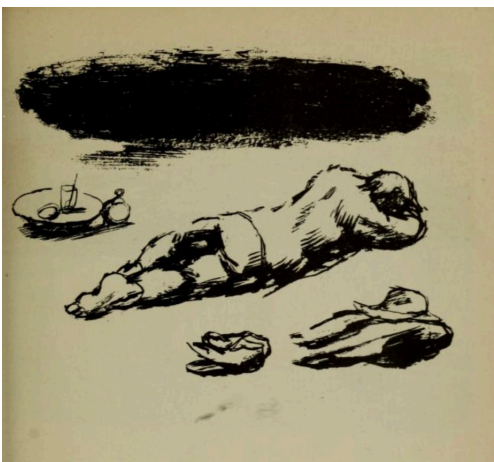
다섯 쌍둥이

"보아라, 그들은 털복숭이에 암내가 나고, 다섯 쌍둥이를 낳는다(breed quintuplets). 그들이 짐승에서 한치도 진화하지 못했다는 충분한 증거다."²⁵ 당시 일본 군국주의 정부는 우생학을 가지고 미국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프로파간다를 펼쳤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나는 처음에 글을 읽지 않은 채로 그림들을 넘겨 보다가 이 페이지를 마주치고는 법의학 책의 영아 유기/살해 챕터를 떠올렸다. 하지만 살펴보면 마치 한 아이가 누워서 몸을 뒤집는 장면을 기록한 듯 연속적인 움직임으로도 보이는 생생한 모습이다.



작가의 어린 아들 마코의 벌거벗은 몸

작가의 어린 아들 마코가 벌거벗은 채로 뒷모습을 보이고 누워있다. 화자는 철도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군사와 탱크를 실어 나르는 기차가 지나갈 때면 집이 항상 심하게 흔들렸다. 어느 조용한 자정에 잠들지 못하고 있던 작가는 어린 아들 마코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불현듯 아름다움을 느낀다.²⁶ 그것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오는 햇살 가득한 산맥의 풍경과도 유사하게, 작가로 하여금 생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게 한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작가의 친구, 기요시의 몸

작가의 고향 친구 기요시는 가장 낮은 임금의 공장 노동자로서 보 호받지 못한 채로 일하는 인물이다. 그는 거의 절망해 있다. 그의 월급은 죽은 여동생의 장례식이나 어머니의 부채를 갚는 데에 쓰인다. 기요시의 고난은 설파 주조에 대한 보다 숙련된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으며 점차 나아졌고, 작가는 그의 삶이 자신의 예술적 기술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의 초상에 대한 몇몇의 미완성 스케치만을 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기요시가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은 작가의 어린 아들이 벌거벗고 누워있던 모습과 비슷한 형상으로 그려진다. "그는 죽은 것처럼 잔다. 깨어나면 온종일의 노동이 기다리고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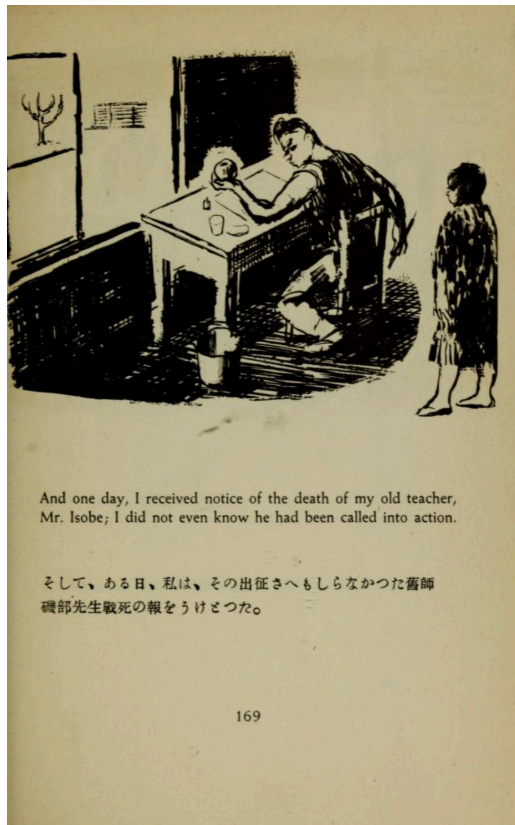
²⁵ 수평선이 부른다 (Taro Yashima, Horizon is Calling, 1947), p.51.

²⁶ 수평선이 부른다 (Taro Yashima, Horizon is Calling, 1947),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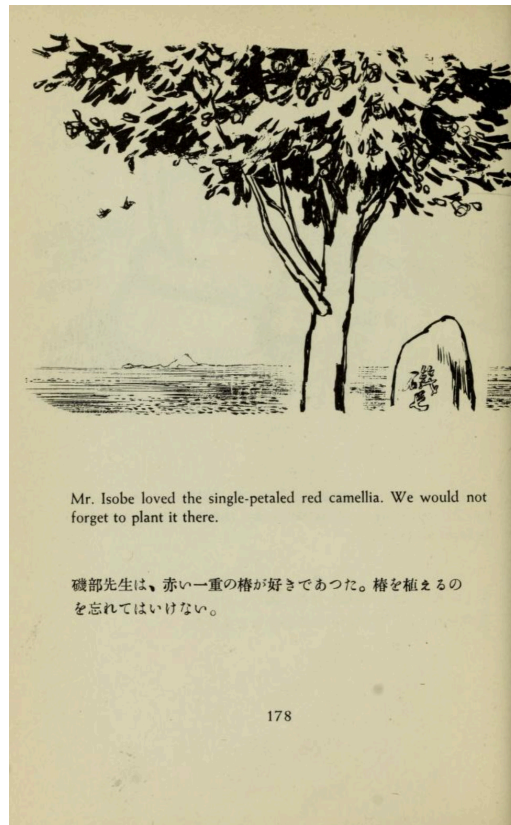
²⁷ 수평선이 부른다 (Taro Yashima, Horizon is Calling, 1947), p.183

마코가 그린, 기요시의 초상²⁸

한편 당시 네 살배기였던 마코의 그림만으로 진행되는 챕터도 있는데, 어린 마코는 개를 그리고, 당근을 그리고, 군화, 전투기, 탱크, 포탄, 총 따위를 그리기 시작한다. 총상을 입은 사령관, 외로운 병사들,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들에게는 꽃을 그린다. (중일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중국 아이를 위한 나비, 그리고 그 아이를 대신 돌봐줄 어른들을 그린다. 홍수로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상상하고, 외국의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하기도 하고,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그린다. 마코의 그림은 "땅꼬마가 그린 그림"의 필치와도 닮았다. 마코는 야시마 타로가 좌절했던 "기요시의 초상"을 능숙히 그린다.



이소베 선생의 죽음



수평선이 부른다 에는 까마귀 소년 이야기에 앞서서 '이소베 선생'도 등장한다. 열 번째 챕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Never To Return"에서 화자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승전 뉴스에 무색하게 재가 든 유골함은 더 자주 도착하고, 임무 수행 중 전사했다는 부고 편지에는 그가 천황을 향해 "만세!"하고 울부짖으며 영웅적인 용감함 속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복사된 양식으로 인쇄되어 있다. 팔다리를 모두 잃은 병사가 항아리에 담긴 채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고, 마을은 홍수가 나 수몰되지만 그런 소식은 전장에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나의 옛 선생님인 이소베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받는다. 나는 그가 징집되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었다."

작가는 슬프고 화가 난 채로, 아들과 함께 집 근처 언덕에 올라가 이소베 선생을 기리는 간이 비석을 만든다. '야시마 타로'가 가명이듯이 '이소베' 선생 또한 가칭인데, '이소베(磯)'라는 말은 '바위가 많은 바닷가'를 뜻한다.

²⁸ 수평선이 부른다 (Taro Yashima, Horizon is Calling, 1947), p.239